

《블레이드 러너》와 포스트휴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강준상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프로 기사들은 “인간이 두는 바둑 같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전의 바둑 프로그램들은 기계 같았는데 《알파고》는 생각하는 인간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세계 1위 커제까지 가볍게 이겼고, 《알파고》끼리 둔 50국의 기보를 남기고 사라졌다. 기사들은 《알파고》의 바둑을 공부하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간들은 학습해 온 방식을 벗어나지 않지만 《알파고》는 인간들이 두지 않는 창의적인, 아니 창의적으로 보이는 수들을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알파고》의 수를 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어떤 영화 한 편이 떠오를지 모른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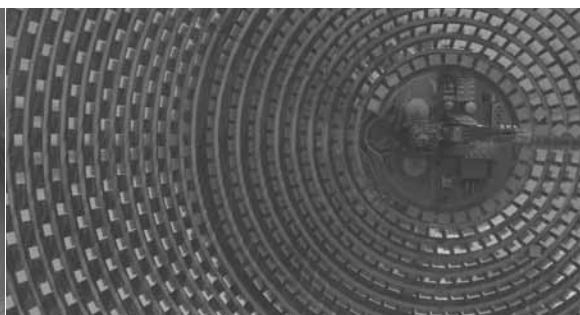
영화 속에서 리플리컨트(복제인간)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 타이렐은 신형 복제인간(넥서스 6호)의 모토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라고 말한다. 이 모토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조금씩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화의 핵심은 인간과 복제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것에 있으나, 영화가 진행되며 과연 인간은 인간적인지, 복제인간이 더 인간적인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엇보다 주인공 데커드(해리슨 포드)는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고민하게 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은 2019년이였다. 올해가 2019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우리에게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세계가 도래하진 않았다. SF 영화 속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등은 아직 문화적 아이콘들일 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은 그에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이며, 로봇과 인공지능은 많은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이 글은 《블레이드 러너》와 재작년에 만들어진 후속작 《블레이드 러너 2049》(이하 《2049》) 두 편의 영화를 통해, 포스트휴먼 자체가 아니라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지, 또는 인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블레이드 러너》의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

몸과 마음, 신체와 영혼의 관계로서의 눈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시작. 로스앤젤레스의 밤,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솟아 있는 공장 굴뚝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 그 사이에서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 타이렐 회사 건물은 테크놀로지와 자본 권력을 상징하듯 어둠 속에 낮게 가라앉아 있는 도시에서 불빛을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쏘고 있다. 바로 다음 장면은 어떤 사람의, 또는 복제인간의 눈동자 클로즈업. 아마도 복제인간의 눈동자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테스트를 당하는 복제인간의 눈을

클로즈업으로 보여 주는 모니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2049》의 시작은? 《2049》의 첫 번째 컷은 바로 눈동자 클로즈업이다. 눈동자를 보여 준 이후, 캘리포니아의 기계화된 도시 모습이 보인다. 이후 이 영화의 주인공인 K(라이언 고슬링)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앞선 눈동자는 K의 눈인 것으로 짐작된다.

두 영화의 눈동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블레이드 러너》의 눈동자는 도시의 야경 다음에 나오고, 《2049》의 눈동자는 도시보다 먼저 나온다. 《블레이드 러너》의 눈동자는 쫓기는 복제인간이 인간에 의해 관찰당하는 눈, 보이는 눈이고, 《2049》의 눈동자는 K의 눈,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다.

동일한 점은 둘 다 복제인간의 눈이라는 것이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직업(도망간 복제인간들을 잡아 ‘은퇴’ 시키는 일)을 가진 이들이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49》에서 블레이드 러너들은 K를 포함해 신형 복제인간들이다. 이 의미, 보이는 눈과 보는 눈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블레이드 러너》에서 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눈은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창이다. 인간은 복제인간에게 질문하면서 눈을 관찰한다. 인간에게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눈은 사물을 보기 위한 시각기관인 동시에, 우리는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 영혼을 본다. 그래서 우린 정면에서 타인의 눈을 응시하기 어렵다. 상대의 눈을 통해 그의 마음을 볼까 봐, 반대로 내 마음이 그에게 보일까 봐 두렵다. 눈은 자아와 세계를 연결해 주고 몸과 마음을 연결해 준다. 눈을 통해 복제인간인지 인간인지

판단한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하지만 이 눈의 의미는 마지막에 역전된다.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된 복제인간 넥서스 6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제작이 중단된다. 반란을 일으킨 넥서스 6호들 중 넷이 지구에서 데커드의 추격을 피해 자신들의 창조주인 타이렐 회장을 찾는데, 그들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로이(룻거 하우어)는 타이렐을 만나 그의 두 눈을 뽑아 죽인다. 아버지 살해.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음을 알고 자신의 눈을 찌르며 말한다. “오, 빛이여, 이제 나로 하여금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 로이는 자신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을 뽑아 버린다. 인간이 스스로를 별하지 않는 시대, 그의 노예인 복제인간이 반란을 통해 인간을 별한다. 그리고 로이는 데커드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준 이후 이렇게 말한다. “난 네가 상상도 못 할 것을 봤어. 오리온 전투에 참가했었고 탄호이저 기지에서 빛으로 물든 바다도 봤어. 그 기억이 모두 곧 사라지겠지. 빛속의 내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그렇게 말한 후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죽는다. 로이를 보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숭고함을 느낀다.

여기서 인간의 눈과 복제인간의 눈의 의미는 뒤바뀐다. 보이는 눈과 보는 눈이 역전된다. 복제인간의 눈은 보이는 눈이 아니라 보는 눈, 반영하는 눈, 인간 주체의 눈이 된다. 보는 나,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된다. 이에 대해 이정우는 “인간의 정체성은 ‘이다’로서 존재하기보다 ‘되다’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한다(『기술과 운명』). 인간의 정체성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행한 것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2049》에서 눈이 두 번째 컷이 아니라 첫 번째 컷으로 나온 이유,



홀든과 레온의 인터뷰 장면(왼쪽)과 홀든 앞쪽에서 레온의 눈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

보이는 눈이 아닌 보는 눈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전편인 《블레이드 러너》에서 반란을 일으킨 복제인간들의 존재 이후, 복제인간은 이미 주체, 행위자로서 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K는 여전히 인간들의 노예로 살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투쟁하며, 사랑을 욕망한다. 그는 변해 간다. K는 주체가 되어 간다.

질문으로 인간을 구별하기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인터뷰다. 《블레이드 러너》에는 두 번의 테스트 장면이 나온다. 첫 번째 장면은 레온 코왈스키라는 복제인간에 대한 테스트다.

홀든(질문자): “만약에 당신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모든 것이……”

레온: “어디요?”

홀든: “가정일 뿐이에요.”

레온: “거기 왜 갔어요?”

홀든: “그냥 심심해서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자라를 봤는데 자라가 당신에게……”

레온: “자라가 뭐죠?”

홀든: “거북이 알죠? 비슷한 거예요. 당신이 다가가서 뒤집어 봤어요.”

레온: “질문은 당신이 만드는 거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요?”

홀든: “자라는 뒤집혀서 뜨거운 태양에 점점 말라 가고 발버둥을 치지만 스스로는 다시 뒤집지 못하죠. 당신의 도움 없인 안 되는데, 당신은 돕질 않아요.”

레온: “내가 돕질 않는다니 무슨 말이요?”

홀든: “당신은 보고만 있다고요. 왜죠? 긴장하지 말아요. 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문만 하죠. 반응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럼 간단하게 좋은 추억을 말해 봐요. 엄마에 관한 것 같은.”

레온: “엄마?”

홀든: “그래요.”

레온: “엄마 얘기를 해 드리지.”

레온은 충을 꺼내 질문하는 상대를 죽여 버린다. 이 질문에서 자라 이야기는 무엇일까? 공감 능력을 묻는 것이다. 자라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타자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레온은 단 한 번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해서 질문한다. 재밌다. 분명히 이 장면은 레온이 복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이지만, 역설적으로 레온은 질문받는

자가 아니라 질문에 대해 질문하는 자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역으로 묻는 거다. 질문자는 상대가 답을 하지 못하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인간과 복제인간의 또 다른 차이인 기억에 관해 묻는다. 레온은 기억을 말하지 않고 총으로 응답한다.

이 테스트는 정당할까? 두 번째 테스트 장면을 보자. 이번엔 데커드가 레이철(손 영)을 상대로 한 테스트다.

레이철: “실수로 인간을 제거해 본 적은 없나요?”

데커드: “아니요”

레이철: “복제인간으로 오인하고 제거한 적은 없나요?”

데커드: “테스트하는 건가요?”

(데커드는 레이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레이철에게 테스트를 시작한다.)

데커드: “생일날 누가 가족 지갑을 선물한다면?”

레이철: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을 신고하겠어요.”

데커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채집한 나비 표본을 보여 준다면?”

레이철: “의사에게 데려가겠어요.”

데커드: “TV를 보는데 갑자기 팔 위에 벌레가 기어가면?”

레이철: “죽여 버리죠.”

데커드: “연극을 보고 있는데 만찬 장면에서 손님들이 에피타이저를 맛있게 먹은 후 삶은 개고기를 먹는다면?”

레이철은 대답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 테스트에서 레이철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지갑 선물은 ‘신

고’ 하겠다고 하고, 어린 아들을 ‘의사에게 데려가겠’다고 하고, 벌레는 ‘죽여 버리’겠다고 답한다. 신고, 의사, 제거. 이 단어들은 자아를 초자아(아버지의 명령, 법의 명령)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데커드는 레이철이 복제인간임을 눈치챈다.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극’과 ‘삶은 개고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삶은 개고기’를 먹는 것과 연극이라는 재현된 무대에서 ‘삶은 개고기’를 먹는 것의 차이, 다시 말해 원본과 복제품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지, 재현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에 대해 레이철은 답하지 못한다. 이로써 테스트는 끝난다. 레이철은 복제인간이다. 타이렐 회장은 옆에서 감탄한다. 몇 개의 질문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나 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히려 인간적인 것은 아닐까?

레이철은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인간들의 노예일 뿐임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다 데커드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에게 묻는다. “당신은 테스트를 받은 적 있어요?” 데커드는 아무 답도 하지 않는다.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기 전에 그 질문을 누가 하고 누가 답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현실 사회에서 위와 같은 질문은 누가 하고 누가 답할까? 정신병원에서 하는 심리테스트라 생각해 보자. 만약 위의 두 테스트와 같은 테스트를 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면 정신병 환자로 진단받게 된다. 누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구에게 답해야 할 의무를 주는가? 앞서 언급한 로이의 마지막 죽음 장면 직전, 로이는 자신의 연인을 죽인 데커드가 건물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묻는다. “공포 속에서 사는 기분

이 어때? 그게 노예의 기분이야.” 그러고는 그를 구해 준다. 여기서 질문하는 자와 질문받는 자도 바뀐다. 로이는 자신을 자각하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데커드는 인간인가 복제인간인가? 기억의 문제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기억이다. 기술로 삽입한 것인가, 실재하는 기억인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저주받은 걸작, 또는 컬트걸작이란 명성 또는 오명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개봉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난해했고, 액션영화를 기대한 관객들이 많았는데 액션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걸작이 된 이유는 비디오로 출시된 이후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논쟁은 대중 사이에서는 ‘데커드가 인간인가 복제인간인가’란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졌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포스트모던 담론, 그중에서도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과 함께 시뮬라크르의 시대를 열면서 벌어졌다.

데커드는 인간인가 복제인간인가? 《블레이드 러너》에서 복제인간을 추격해 ‘은퇴’ 시키는 데커드 자신이 복제인간일 수도 있다는 흔적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논쟁은 무엇보다도 유니콘, 사진, 기억, 꿈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후속작이 제작된다고 발표되었을 때, 《블레이드 러너》의 많은 팬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어떤 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궁금해했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현명한 태도를 취한다. 원작의 열린 결말을



《블레이드 러너》에서 로이가 죽는 장면(왼쪽)과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K가 죽는 장면

유지해 버렸다. 답을 주지 않은 것이다. 데커드는 30년의 나이를 더 먹은 상태로 등장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공지능일 뿐 다른 신체는 유기물인 생명체이고, 넥서스 6호는 수명을 4년으로 제한했으나 인간과 유사한 생명주기를 가지는 복제인간도 있을 수 있기에 인간이라 단정할 수도 없고 복제인간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2049》는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대신 원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져와 주인공 K의 기억이 주입된 기억일까 실제한 기억일까를 주요한 문제로 삼는다. 《블레이드 러너》의 경우 데커드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복제인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반대로 《2049》의 경우는 K가 기억이 주입된 복제인간인 줄 알았는데 복제인간으로부터 탄생한 아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실제의 기억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질문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니콘이 아니라 말 목각 인형이 등장한다. K는 사건을 추적하면서 목각 인형이 실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쩌면 자신이 데커드와 레이철로부터 탄생한 기적의 아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기억은 실재 데커드와 레이철의 아

이인 스텔린 박사가 그녀 자신의 기억을 심어 준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도 K는 목숨을 걸고 데커드를 구해 낸 이후 그가 딸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준 후 죽는다.

데커드를 살리고 비를 맞으며 죽는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 그리고 데커드를 딸에게 데려다준 후 눈을 맞으며 죽는 《2049》의 K, 모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숭고함을 드러낸다. K의 어린 시절 기억은 복제된 가짜였지만, K의 삶이 가짜라고 할 이는 없을 것이다. 로이가 타이렐(창조주이자 자본)과 싸운 것처럼, K는 자신을 만든 윌리스(창조주이자 자본)와 싸우고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

눈동자, 질문, 기억, 이 세 가지로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한다고 말했지만, 두 편의 영화는 그것들로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영화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유와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것이라 말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2049》.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짧게 언급하며 글을 마치겠다.

첫째,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복제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뤘다면 《2049》에서는 복제인간과 신체 없는 인공지능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K와 인공지능 조이의 사랑은 어떤 인간들의 사랑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연민을 자아낸다.

둘째, 복제인간으로부터 탄생한 아이, 스텔린 박사가 하는 일은 복제인간에게 기억을 심어 주는 일이다. 기억을 만들어 주는 일, 다시 말해 원본 없는 또는 원본 있는 복제품을 창작하는 일, 그 자체가 은유와 환유로 이뤄진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복제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다. 최근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을 창작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있다.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 이제 예술의 영역도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건 미래에 예술 작품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발전한 것인가, 인간의 일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휴먼으로 인해 인간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붕괴하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인간이 근대 이후 자연을 도구로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산업화한 자본 안에서 소외된 임금노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사회적 노동과 여가를 늘리며 더 평등한 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도래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빅데이터 소유권을 어떻게 인간에게 되돌릴 수 있을지, 더 근본적으로는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에서 인간이란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시디

강준상

다큐멘터리 《달려라 휠체어, 달려라 박정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등을 연출했으며, 공연연출작으로 《옹달샘》, 《꽃》, 《줄탁동시》, 《스퀘어 - 다시 지금 여기에서》 등이 있다.